

## 협 · 회 · 소 · 식

### 2005년 정기총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4일 조충환 회장(한국타이어 사장)을 비롯해 한국 진승도 부사장, 금호 김봉구 부사장, 넥센 이상욱 부사장, 흥아 손이태 사장, 신흥 임정희 상무, 동아 심영훈 소장, 삼익 박재철 부장, (주)넥센 조원영 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Maple Room에서 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 안건으로는 04년도 결산 승인(안), 이익잉여금처분 승인(안), 0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임원(감사)개선(안) 등이 상정, 의결되었다.

조충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사들 자체노력과 대외 경제 환경 덕택으로 04년 타이어 업계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으나, 금년도에는 타이어원재료 확보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원자재 비용 상승, 원화절상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교도의정서, 기타 환경규제에 대한 공동대응에 소요되는 간접비용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회원 업계간의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TMA) 방문

우리협회 이광복 전무이사, 송영기 기술부장, 이종렬 환경대책과장은 04. 12. 5~12일까지 일본 JATMA와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일본의 타이어 안전관리 및 페타이어 처리실태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JATMA와 JATMA 관동 지방 검사소, 환경성, 페타이어 리사이클협동조합, 신일본제철(히로하타공장), 태평양시멘트(구마가야공장), 산업진흥(주)리사이클센터, 고꾸부상회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결과, 일본의 타이어 안전관리 및 페타이어 처리 관련 업무 분석을 통하여, 타이어 안전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제고와 페타이어 재활용 체계 검토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우리협회의 업무현황을 점검, 개선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 향후 양 협회는 교류 정례화를 약속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 페타이어 회수·처리업자 현황 조사

우리협회는 04년 12월 페타이어 회수·처리업자 25개사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개 업체당 평균 집하장 면적 1,388평, 차량 7.3대 보유 등 모든 업체가 적정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항으로 업체들의 수집비용, 주요 수집처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는데, 결과 자료는 페타이어 회수·처리현황관련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페타이어 재활용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우리협회는 04. 12월 협회 회의실에서 페타이어 회수·처리실적 보고 및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활용실무위원회(한국, 금호, 넥센 내수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풍성타이어(대표 윤희선)의 페타이어 회수·처리업 지정 취소, 04. 12. 23~31까지의 시멘트킬른용 페타이어 공급 중단 등을 조치하였다.

### 설날 귀성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협회는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KBS-2 라디오와 합동으로 지난 2월 7일(설날) 귀성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안전점검」과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날 서비스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 만남의 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었는데, 협회에선 타이어 공기압과 손상유무를 점검하여 조치했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엔진오일, 냉각수, 등화장치 등의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타이어 점검서비스에서는 총 333대의 승용차를 점검 하였는데, 타이어 정비불량 차량이 113대로 34%의 정비불량율을 나타냈으며, 이중 공기압 부적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못이 박히거나 사이드 월 부분 손상이었다.

협회와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타이어와 차량 점검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운전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협회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교통안전공단등 유관기관의 공동 점검서비스를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사무규정 및 페타이어 재활용공제사업규정 개정

협회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 사무규정을 05년 2월 15일자로 전면개정하였다. 협회 사무규정은 1956년 제정이래 부분적으로 개정, 운용하여 온 결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 그간에 개정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의 “3부 6과” 직제를 “2실 4팀”으로 개편하여 조직을 단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밖에 인사, 예산·회계, 자산관리 등 제반규정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협회는 05년부터 환경부에서 페타이어의 재활용 의무이행방법(“의무량”에서 “의무율”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페타이어 재활용 공제산업에 관한 규정상 공제조합원의 분담금 배분방법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재활용 의무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아울러 신설, 반영하였다.